한지문화축제 19일 개최… 전주한지, 글로벌 문화도시 이끈다

‘스밈 · 여백’의 명맥 잇기 주력

전주는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품질을 간직한 우수한 한지가 생산되는 도시로, 전주시는 이번 2017 전주한지문화축제를 통해 전주한지의 대중화와 산업화, 세계화를 꿈꾸고 있다.

닥나무의 질감에 식물의 뿌리, 잎, 줄기에서 얻어진 천연염료로 때깔을 입혀 만든 전통수공예품인 한지는 우리 옛 선조들의 혼과 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정신으로, 전주는 ‘스밈과 여백의 문화’인 한지의 명맥을 확고히 잇고 발전시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5월 19일 개막한다.

1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남호 전북대 총장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한지문화축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주한지로 세계적인 문화도시 도약

전주한지는 조선시대부터 임금님에게 상납하던 진상품으로 오늘날에도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며 각종 공예품, 생활용품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 깊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세계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시는 유럽 등 세계각지에서 지류문화재 복원 종이로 쓰이는 일본의 화지를 전주한지 등 전통한지로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한지(韓紙) 세계화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일례로, 전주시와 외교부,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주시애틀총영사관과 주프랑스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등 재외공간의 핵심공간인 접견실과 만찬장, 응접실, 민원실 등을 한지의 멋을 살린 한지벽지와 한지조명, 한지공예품 등으로 꾸며 대한민국의 전통미와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왔다.

▲2017 전주한주문화축제 주요프로그램은?

이러한 전주한지의 대중화와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 열리는 올해 전주한지문화축제는 먼저, 오는 19일 오후 6시에 진행되는 개막식으로 축제의 성대한 막을 올린다.

개막행사로는 올해 전주한지문화축제 홍보대사를 맡은 국악인 남상일과 소프라노 김민지, U-20월드컵 전주시 홍보대사인 록밴드 국카스텐, 탤런트 김수미, 살림예술가 이효재 등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화려하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전주시민들과 축제를 함께 즐길 예정이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전주한지로 제작한 한복을 이용한 ‘2017 전주한지패션대전’과 한지패션갈라쇼가 유명모델의 워킹과 함께 화려한 막을 펼친다.

축제 둘째날인 20일에는 TBN 전주교통방송과 함께 하는 전주시민 축하공연과 한지코스튬플레이패션쇼, 핀아국제앙상블의 ‘한지와 음악이야기’가 진행되며, 폐막일인 21일에는 사단법인 전통예술원 모악의 ‘사물놀이와 국악가요’, 하나로 남북예술단 공연 등이 펼쳐진다.

전주한지의 산업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에 설치되는 ‘한지산업관’은 한지산업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지 액세서리와 한지공예, 한지수의 등 다양한 한지관련 업체의 상품과 전주핸드메이드 업체의 상품이 함께 전시된다.

전주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도 진행된다. 전주시 각동 대표들이 참여하는 ‘한지박 한지공 넣기 대회’에는 한지로 만든 공을 한지박에 넣는 행사로 시민들의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또, 한지지승줄다리기는 단체팀들이 참가해 줄다리기를 겨루면서 한지의 튼튼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이다.

또한, 달빛소원쓰기와 한지엽서·편지쓰기 코너에서는 가족의 소망을 기원하거나 연인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으며, 올해 처음 선보이는 ‘천년한지 사진관’에서는 관람객들이 원하는 사진을 한지에 인화해 준다.

한편, 전주시는 전주한지문화축제 외에도 전주한지의 원형을 복원·발전시키고, 현대인들에게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내 최초의 집적화된 전통한지 생산지인 흑성골 일대에 전통한지 생산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축제 주요 프로그램

개막행사에 국카스탠 등 출연
오후 7시 한지패션갈라쇼
둘째날, 한지와 음악이야기
폐막일에 남북예술단 공연

전주핸드메이드 제품 전시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행사도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전주시

‘국가대표 책 읽는 도시’ 선포

행사는 9월 1일부터 3일간 경기전 등서 진행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독서진흥에 가장 앞장서온 지자체로 인정을 받았다.

시는 1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국내 출판계와 도서관계, 독서계, 문학계 관계자 및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대한민국 책의 도시 전주’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된 전주시가 국가대표 책 읽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자리로, 시는 이날 행사에서 문체부로부터 ‘2017 대한민국 책의 도시’ 상징기를 전수받았다.

시가 이처럼 정부로부터 ‘2017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인정을 받은 것은 ‘걸어서 10분 이내’ 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공·사립작은도서관, 북카페 등 현재 180여개의 책 읽는 공간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또, 1시민 1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지난해 5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문주간을 선포하는 등 ‘책 읽는 인문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전달하고 책놀이 활동을 진행하는 ‘생애첫 도서관 이야기’ 참가자들에게 책 꾸러미가 전달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유길문 회장이 이끄는 전국 최대의 독서동아리인 리더스클럽 회원들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서를 지원하는 ‘지혜의 반찬’ 성금 200만원을 모아 전달해 독서대전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연탄길’의 저자인 이철환 작가와 우리 시에 곡을 붙여 노래하는 책의 노래 서울밴드의 강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인문학 콘서트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가 올해의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됐다는 것은 전주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독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 대한민국 책의 도시 전주 선포가 시민 모두에게 책 읽기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책 읽는 소리 가득한 전주에서 열리는 올해 독서대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전국 출판·독서·도서 관련 300여개 기관·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전국 규모의 독서 박람회로,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전과 한국전통문화전당, 국립무형유산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되는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출판 및 독서진흥 관련 행사·공연, 기획전시, 학술·토론, 북마켓·체험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 참여 점포 신청접수

전주시에서는 동네슈퍼(나들가게) 활성화를 위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참여 점포를 15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주시가 중소기업청의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11억(국비8억, 시비3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2차년도 사업대상 점포를 모집한다.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의 무차별적 골목상권 진입으로 위기상황에 내몰린 동네수퍼를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및 방제관리,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침체된 골목수퍼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차년도 사업은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방제관리 및 상품관리와 편리한 쇼핑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점주 영업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며 신청기간 접수된 점포에 대해 평가를 통해 대상점포를 선정한다.

지난해 1차년도 사업결과 공동세일전의 경우 행사기간 평균 24%의 매출 신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개선 등 참여점포의 84%에서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효과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근 기자

농협 여직원 탈의실서 카메라 설치된 손목시계 발견

15일 전주완산경찰서는 농협의 여직원 탈의실에서 카메라가 설치된 손목시계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전주소재의 한 농협에서 근무하던 A씨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들어간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달려있는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민근 기자

완산경찰서, 상습 차량 절도 30대 남성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15일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혐의(절도)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10시2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길가에 정차한 차량에서 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전주시 일대를 돌며 15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동종전과 11범으로 앞서 같은 날 오후 8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자전거보관소에서 오토바이 1대(100만원 상당)를 훔쳐 타고 다니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길가에 정차한 차량 중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운전자가 내린 차량을 노렸다.

경찰은 범행 수법에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文 대통령 테러 협박 20대 형사입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청와대 · 부탄가스 사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을 테러하겠다며 인터넷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청와대 전경 사진과 부탄가스 사진을 올려 협박한 이모(2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5일 협박 혐의로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8시께 대통령을 테러하겠다는 제목으로 청와대 전경 사진과 부탄가스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린것이며 실행에 옮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이후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